

## | 프롤로그: 도시를 짓고, 기억을 남기다

- 1) 시간을 담아, 역사를 엮다
- 2) 계룡건설의 디자인 자산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 | 도시의 기초를 짓다, 계룡의 시간을 세우다

- 1) 대전, 계룡이 뿌리내린 첫 터전
- 2) 도전과 열정으로 시작된 계룡건설
- 3) 디자인으로 쌓인 시간, 변화의 기록

## | 공간에 새긴 철학, 브랜드로 말하다

- 1) 계룡건설의 얼굴, 시대를 담은 로고의 여정
- 2) 아파트 브랜드 디자인의 진화
- 3) 사람과 도시를 잇는 계룡건설

## | 에필로그: 반세기를 넘어, 백년을 향해

- 1) 대전과 함께해 온 시간, 그리고 이어질 이야기

### 시간을 담아, 역사를 엮다

「기억을 설계하고, 시간을 세우다」

도시는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건축물과 공간을 통해 각 시대의 변화와 흔적을 남기고, 기업의 활동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기록으로 축적됩니다. 1970년, 대전을 기반으로 설립된 계룡건설은 56년의 시간 동안 공공, 주거,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역의 도시 환경 형성 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건축물과 브랜드 자산, 사업 기록은 단순한 실적을 넘어 대전의 도시 변화와 산업적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계룡건설의 주요 사업은 규모, 난이도, 기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대전 기업 디자인 아카이빙』은 계룡건설이 수행해 온 프로젝트를 디자인 아카이빙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에 적용된 시각적 요소와 공간 구성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기업 활동 속에서 형성된 디자인적 특성이 도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축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리포트는 계룡건설의 활동을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에 그치지 않고,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브랜드 체계의 형성과 변화, 프로젝트별 디자인 요소의 적용 양상을 정리·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축적해 온 시각 자산이 도시 환경과 지역 문화 속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형성되고 확장되어 왔는지를 조망하며, 향후 지역 기업 디자인 아카이빙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 자료 범위 및 작성 기준

계룡건설은 대전을 출발점으로 성장해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전역에서 공공건축, 주거시설, 산업시설, 토목·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해 온 종합 건설사입니다. 다만 본 리포트는 ‘디자인 아카이빙’이라는 연구 목적과 ‘대전 지역’에 대한 기획 방향에 따라, 계룡건설의 모든 사업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 대전 지역과 연관된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리포트는 다음의 기준에 근거해 아카이빙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 ① 대전 지역 상징성: 대전 지역과의 공간적·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사업
- ② 공공성 및 시민 경험: 공공·문화·주거 시설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공간적 경험과 시각 자산이 축적된 사업
- ③ 역사적 연속성: 도시의 변화 과정과 기업의 활동 이력이 함께 확인되는 사업

#### ④ 기록의 확보성: 디자인 아카이빙을 위한 공식 자료와 객관적 기록이 확보된 사업

본 리포트에 수록된 사업과 사례는 계룡건설이 수행해 온 방대한 사업 실적 가운데, 디자인적 가치와 지역적 맥락이 확인되는 일부 사례를 기준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전국 단위의 사업 실적 또한 계룡건설의 주요 성과이며, 본 리포트는 ‘대전’과 ‘디자인’이라는 한정된 관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시각 자산과 도시 환경의 접점을 기록한 아카이빙 자료입니다.

본 리포트의 서술은 계룡건설이 제공한 사사, 브로셔, 공식 문서 및 관련 이미지 자료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사실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도, 명칭, 규모 등 주요 정보는 제공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하였으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은 사실 확인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성된 본 리포트는 향후 지역 기업 디자인 아카이빙 연구와 도시 문화 기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계룡건설의 디자인 자산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 「도시의 변화와 함께 축적된 기업의 기록」

계룡건설은 1970년 설립 이후 공공시설, 주거단지, 문화시설, 산업·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시기 지역사회가 요구한 공공 인프라 확충, 주거 환경 개선, 문화시설 조성 등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로 축적된 건축물과 관련 기록은 대전 지역 도시 환경이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기록 가운데 기업의 공식 문서와 자료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별로 적용된 주요 디자인 요소를 선별·정리하고, 그 변화 양상과 특징을 객관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아카이빙 작업은 계룡건설의 주요 사업과 디자인 자산을 통해 지역 도시 환경과 시각적 요소가 어떤 경로를 거쳐 형성되어 왔는지를 정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기업 단위의 성과를 단순히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 도시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기업 활동이 남긴 결과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기록은 대전 지역의 도시 환경 변화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이자, 기업이 추진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생활 환경이 형성·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대전 기업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도시 관련 기록물로서 공공적 가치를 지닙니다.

## 대전, 계룡이 뿌리내린 첫 터전

### 「대전에서 시작된 계룡건설」

1970년대 초반, 대전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도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였습니다. 정부 기관 이전, 도심 정비, 산업단지 조성, 주택 공급 확대가 이어지며 공공시설과 교통망, 주거지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설 산업은 지역 도시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대전은 중부권 개발 거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기본계획이 확정된 대덕연구단지는 행정·산업·연구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며, 대전의 성장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4년부터 본격화된 대덕연구단지 조성과 더불어 대전 전역에서 공공 및 주거 시설 건립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지역 건설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 흐름 속에서 1970년 계룡건설합자회사가 대전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계룡건설은 초기 단계에서 지역 내 공공 인프라 구축과 주거지 조성 관련 사업에 참여하며,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조성 등 기초적인 건설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1980~1990년대에는 중앙행정 기능의 이전, 둔산신도시 개발, 대전엑스포 개최 등이 이어지며 지역의 도시 기반과 공공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계룡건설은 이 시기 대전 지역에서 추진된 다양한 건설 사업에 참여하며 사업 규모와 범위를 넓혀 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응노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설에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공공·문화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계룡건설은 대전 지역에서 축적한 초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주거·문화·공공 인프라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계룡건설이 수행한 프로젝트들은 각 시기 대전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대전은 계룡건설이 초기 사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시공 경험을 축적한 활동 기반이 되었고, 이러한 배경은 이후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도전과 열정으로 시작된 계룡건설

### 「새로운 건설 사업의 출발」

1970년, 이인구 명예회장은 육군 공병 분야에서의 장기간 복무 경험과 해외 공병 관련 연수를 통해 습득한 기술적 지식, 그리고 전후 복구사업 등 다양한 건설 현장 참여를 통해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건설 분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전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계룡건설합자회사는 경영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인구 명예회장은 해당 회사를 인수하며 대전을 거점으로 한 본격적인 기업 경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70년 1월 20일, 계룡건설합자회사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12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공식적인 창립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2월에는 발기인회를 재구성해 재창업 절차를 진행했으며, 창립총회에서 이인구 명예회장은 무한책임직원(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대전은 산업화와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던 시기로, 공공시설과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계룡건설은 지역 내 초기 건설 사업을 수행하며 기업 운영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갔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내부 운영 방향과 사업 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창업 슬로건을 수립했습니다.

### [창업 슬로건]

- **도전:** 기존 업체에 기대어 생존하지 말고 1등에 도전하자
- **개척:** 건설방식을 선진현대화하고 중장비로 무장하자
- **일로매진:** 앞만 보고 돌진하자



### ■ 회사 설립 초창기 시절 기공식

: 1970년대에 진행된 기공식 장면을 기록한 사진으로,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공사 현장의 분위기와 사업 착수 과정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 계룡건설합자회사 창업

: 1970년, 이인구 명예회장은 계룡건설합자회사를 인수한 뒤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시작하였다. 사진은 당시 사무실 앞에서 촬영된 기록 자료로, 계룡건설이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하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계룡건설 창업주 유림(裕林) 이인구 명예회장

: 1931년 대전 동구에서 출생한 이인구 명예회장은 육군 공병 복무와 유학을 통해 공병 기술 및 시공 경험을 축적하였다. 1970년 계룡건설합자회사를 인수하며 대전에서 기업 운영을 시작하였고, 설립 초기에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을 수행하였다.

## 「지역에서 시작된 성장, 사업 영역의 확장」

1970년대 후반, 계룡건설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설 사업에 참여했으며 주거, 토목, 기반시설 등 여러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1977년에는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대전 최초의 민간 맨션아파트인 '계룡맨션아파트'를 자체 분양·시공하며 민간 주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1979년 서해안 대홍수로 파손된 충남 서천 종천방조제의 응급 복구 공사를 수행하며 지역 기반시설 안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계룡건설이 설립 초기 지역의 공공·주거·기반시설 수요에 대응하며 수행한 주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이후 공공건축, 주거단지, 산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계룡건설은 관공서, 산업시설, 주택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대전시청사, 대전월드컵 경기장, 베이스볼 드림파크, 이응노미술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참여하며 시공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시대별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해 리슈빌(RicheVille), 로덴하우스(RothenHaus), 엘리프(ELIF) 등 주거 브랜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계룡건설은 이후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해외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종합 건설사로서의 기반을 갖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시공 경험의 축적을 통해 기업의 사업 범위와 수행 역량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온 흐름을 보여줍니다.



■ 선화동 구사옥

: 1970년 설립 초기, 계룡건설은 대전시 중구 선화동(구 MBC 사옥 인근)의 12평 규모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을 시작하였다.



■ 오류동 구사옥

: 1976년 기업 성장에 발맞춰 대전 중구 오류동으로 사옥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1993년 대전 서구 월평동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 鷄龍맨손아파트起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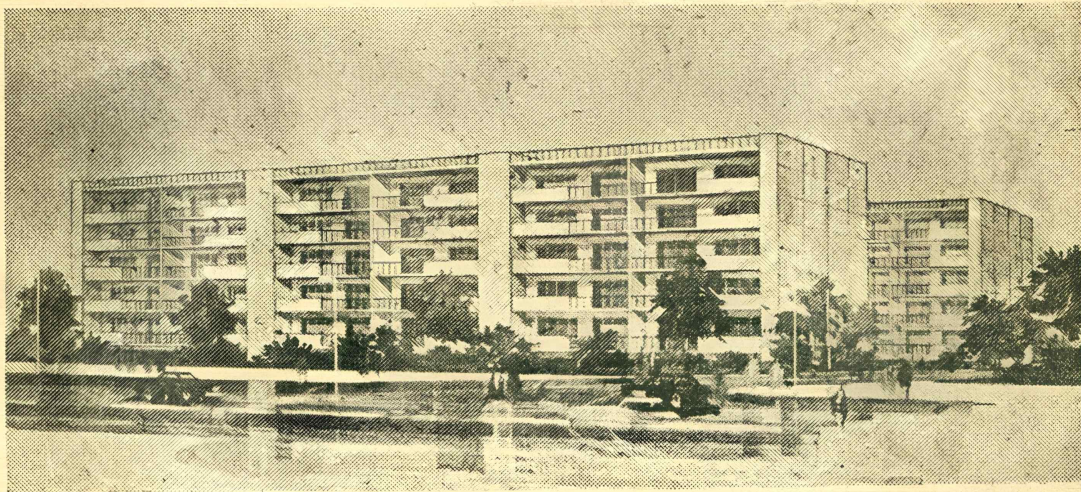


## 平面說明

位 置 大田市 文化洞 1-35 (接隣露堂)  
 棟 數 3棟  
 世 帶 數 90世帶 및 共用施設 (점포)  
 專 用 面 積 24·85坪  
 權 利 面 積 26·74坪  
 總 使 用 面 積 29·13坪  
 衛 生, 暖 房, 內 部 裝 飾 一 切 高 級 現 代 式

## 工程計劃

起 工 1977年9月9日  
 附 造 完 成 1977年12月25日  
 竣 工 完 成 1977年12月25日  
 竣 工 人 住 1978年4月30日  
 分 讓 計 劃 追後發表



<계룡맨손 아파트 조감도>

## 鷄龍建設合資會社

☎ ④1976 ④4015  
 ④3924

### ■ 1977년, 계룡맨션아파트 착공

: 1977년 계룡건설은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24평형·90세대 규모의 민간 맨션아파트인 '계룡맨션아파트'를 착공하였다. 이 사업은 대전 지역에서 추진된 초기 민간 아파트 개발 사례 중 하나로, 계룡건설이 주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의 흐름을 보여준다. 당시 국내에서 모델하우스 개념이 보편화되기 이전이었던 시기에 계룡건설은 골조 공사 단계에서 건물 1층 내부를 우선 완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 中小企業 허덕 21곳 休業



계룡건설대표 李顯求씨가 중합경기장 공사를 지휘하고 있다.

## 資金難에 판매부진 21곳은 操業을 단축

【대전 11日電】 대전지역 중소기업 21곳이 자금난에 판매부진으로 운영을 축소하고 있다. 대전지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이기우)는 11일 대전지역 중소기업 21곳이 자금난에 판매부진으로 운영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회측은 이들 중소기업은 대전지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이기우)에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회측은 이들 중소기업은 대전지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이기우)에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 大田종합경기장 15일 完工

### 韓國 첫 캔틸레버 지붕... 시멘트 20만부대 들어

### 延建坪 6천4백평... 3만명 收容

○... [대전 11日電] 대전종합경기장은 15일 완공된다. 이 경기장은 한국 최초의 캔틸레버 지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시멘트 20만부대를 투입하여 6천4백평의 면적을 차지하며 3만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 골목 유치원 開設

東大田 청년회와 이소 大洞에 유치원을 설립한다. 골목 유치원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



이들같은 大田시가지역은 거터마나 아직 물레가 많을것을 생각되고 있다.

## 전국체육대회 완공

### 에드빌칸도 투동신

### 12일開幕 잔여안고 秩序있게

【대전 11日電】 대전종합경기장은 12일 개막식을 치른다. 이 경기장은 한국 최초의 캔틸레버 지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시멘트 20만부대를 투입하여 6천4백평의 면적을 차지하며 3만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 서울運보다 큰 競技場

## 寶文原頭 道民정성담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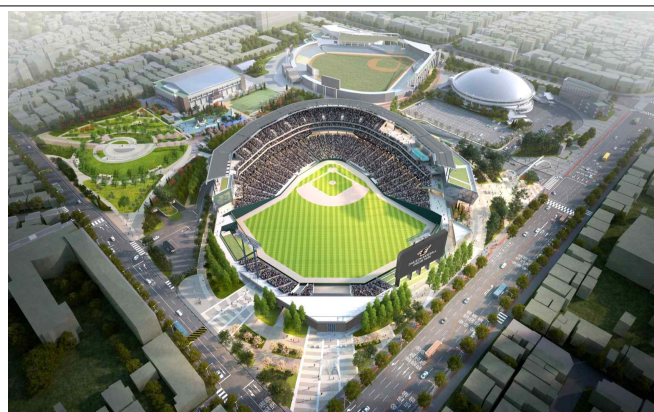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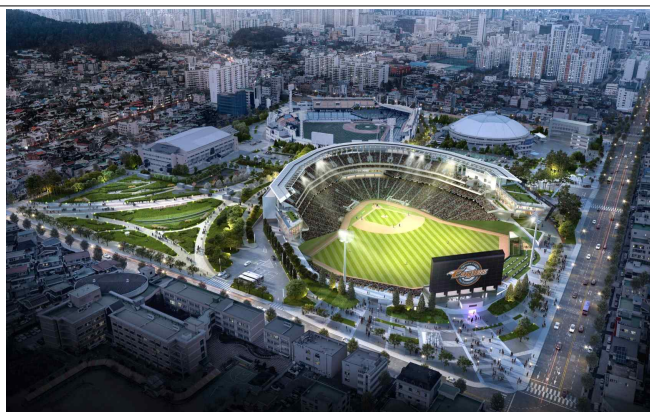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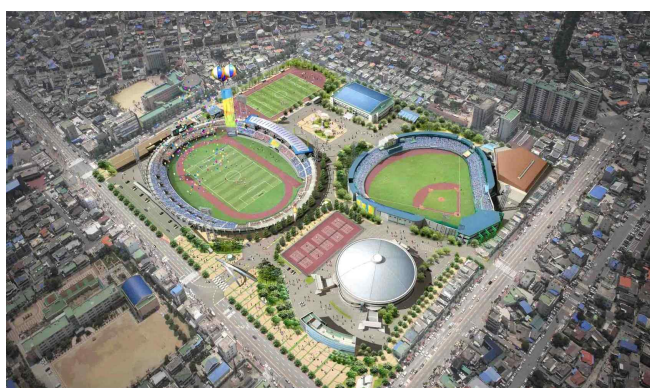
### 誠金16億 94億들어 大田市 모습바뀐다

【대전 11日電】 대전종합경기장은 서울종합경기장보다 규모가 크다. 이 경기장은 16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설된다. 대전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회측은 대전지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이기우)에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 1978년, 대전공설운동장(한밭종합운동장) 신설  
 : 1979년 제60회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추진된 대전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공사는 기존 시공 중단 이후 계룡건설이 인수한 프로젝트이다. 계룡건설은 제한된 공사 기간 속에서 공정을 재정비하여 1979년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 준공을 완료하였다. 특히 본부식 지붕에는 기둥 없이 돌출된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를 적용하여 관람석 시야를 극대화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계룡건설의 선진적 구조 기술력을 확인해 주는 핵심 요소이다.











■ 대전공설운동장(한밭종합운동장)의 오늘, 베이스볼 드림파크

: 대전공설운동장은 1979년 제60회 전국체전의 주경기장으로 준공된 종합운동장으로, 이후 '한밭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되며 대전 지역의 주요 공공 체육시설로 활용되어 왔다. 이 시설은 1988년 서울올림픽 축구 예선 경기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스포츠 행사를 수용하며, 대전 지역 스포츠 인프라의 핵심 시설로 기능했다. 이후 시설 노후화와 신축 야구장 조성 계획에 따라 2022년 폐장 후, 철거되었으며 해당 부지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대전의 스포츠·문화 시설 체계가 재편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 | 계룡건설 주요 사업지 현황

계룡건설은 전국 단위에서 다양한 유형의 건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룡건설이 수행한 주요 사업 실적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국 사업지 리스트	연도	대전 사업지 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지하철</li> <li>• 둔산지구 강변아파트</li> <li>• 청원~증약 터널</li> </ul>	197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월드컵경기장(1998) : 국내 최초 반개폐식 지붕구조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남 도곡동 로덴하우스</li> <li>• 다산2 일반산업단지</li> <li>• 고속국도 제30호선 당진~대전간 건설공사(제3공구)</li> <li>• 군장국가산업단지 7공구</li> </ul>	2001~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은 리슈빌1,2(2001-2022) : 최초의 '리슈빌' 브랜드 아파트</li> <li>• 대전지하철 1호선 1-14공구(2004) : 대전 지역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li> <li>• 이응노미술관(2005) : 국내 최초 백색콘크리트 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하바롭스크 리슈빌</li> <li>• 충청남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li> <li>• 서산1 일반산업단지</li> <li>• 당진 신청사 및 의회건립 공사</li> <li>• 원주종합체육관</li> <li>• 고양 삼송 리슈빌</li> <li>• 주암댐 비상여수로</li> </ul>	2006~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룡 로덴하우스(2007) : 최고급 프리미엄 브랜드 '로덴하우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급 주거단지</li> <li>• 유림공원(2009) : 사재를 출연하여 대전시에 기증한 명품 도시 숲 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보고 남극 제2기지</li> <li>• 러시아 하바롭스크 리슈빌 2차</li> <li>•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2경기장</li> <li>• EBS 디지털 통합사옥</li> <li>•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li> <li>•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li> <li>• 서울식물원</li> <li>• 세종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THE CENTRAL</li> <li>•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1공구 조성공사</li> </ul>	2011~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2014)</li> <li>• 대전광역시 제1호기 소각시설 대보수(2014) : 국내 최초 3세대 바이오가스화 시설. 음식물 폐기물로 친환경 에너지 생성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의 가능성을 제시한 친환경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박물관·컨벤션동) 건립공사</li> <li>• 원주~강릉 강릉역사 건설공사</li> <li>• 세종 충남대병원</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차 건립사업(2016) : 기초과학분야 연구의 성장동력</li> </ul>	

전국 사업지 리스트	연도	대전 사업지 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TBC 스튜디오 일산</li> <li>•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신사옥</li> <li>•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li> <li>• 한국문화테마파크</li> <li>• 구니CC (인수 및 대중제 골프장 변경 승인)</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2017) : 대전 100년과 93년 엑스포의 의미를 담은 높이 193m의 대전광역시 최고층 비주거 건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li> <li>• 광고복합체육센터</li> <li>•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간 건설공사(제8공구)</li> <li>•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5공구)</li> <li>• 캄보디아 다운트리 댐 개발사업</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샘대교(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2018) : 대전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아치교로 물류 유통의 효율을 향상해 주는 지역균형 발전의 다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 통합별관</li> <li>• 루트52</li> <li>•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li> <li>• 에너지신기술연구소</li> <li>•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2공구</li> <li>• 동탄호수공원 리슈빌 (경기 화성 동탄2 A-87블록 뉴스테이)</li> <li>• 서울축산농협 종합시설 신축공사(건축공사)</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컨벤션센터(DCC)(2019) : 국제회의와 전시, 문화행사가 가능한 대전 대표 MICE 시설. 대전을 국제 교류·산업 전시의 중심지로 확장시키는 핵심 인프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공사</li> <li>•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시공책임형CM</li> <li>•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li> <li>• 행복도시 6-3 M4, UR 1,2 민간참여 공공주택/ 모듈러 주택</li> <li>• 포항~삼척 죽변역사 외 3개역사 신축공사</li> <li>• 고려대 구로병원 증축공사</li> <li>• 여주 가남 물류센터</li> <li>• 서울 보문 리슈빌 하우트 (서울 성북 보문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li> <li>•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송파 위례신도시 A1-6블록 공동주택용지)</li> <li>• 미얀마 한-미 경제협력 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대학교병원 본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2020)</li> <li>• 건양대병원 증축 및 기타공사(2020) :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전문 진료 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대전 서남부권의 의료 인프라 균형을 완성한 핵심 시설로 진료·의료 지원 공간을 확충하고 의료 서비스 수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li> </ul>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로에너지 임대리츠 화성동탄지구</li> <li>• 부산 에코델타시티 3단계 3공구 조성공사</li> <li>• 판교 제2 테크노밸리(G3-2) 인터파크 사옥 건립공사</li> <li>• 덕산의료재단 수원덕산병원</li> <li>• 한국폴리텍대학 대구 캠퍼스 공학관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li> <li>• 엘리트 성남신촌 (성남신촌 A2 민간참여 공공주택)</li> <li>• 매종 드 엘리트 송산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EB-2, EB-3 연립주택)</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역세권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사업(2021) : 대전역 일원을 중심으로 교통·상업·업무 기능을 복합적으로 계획한 도시개발 사업. 정체된 원도심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li> <li>• 대전 천동리더스시티 4,5블록(2021) : 대전 동구 천동3구역을 재정비하는 주거 환경개선사업. 대전 천동의 주거 랜드마크 크로서 2개 블록 기준 총 3,463가구의 대단지 아파트</li> </ul>	  

전국 사업지 리스트	연도	대전 사업지 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역세권혁신지구 기술제한형 리츠</li> <li>•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li> <li>• 베트남 흥옌시 클린 산업단지</li> <li>• 경기 화성 능동 A1 공공지원 민간임대</li> <li>• 마곡 D38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이앤유)</li> <li>• 엘리트 옥정 시그니처 (양주옥정A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li> <li>• 경기 과천 과천지식산업센터 11-2BL(옵트론텍)</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2022) : 국내 최초 친환경 제로에너지 야구장으로 서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복합공간</li> <li>• 송촌 엘리트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2022) : 대전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을 품 은 프리미엄 아파트</li> <li>• 갑천2 트리폴리티 엘리트(2022) : 갑천 수변과 어우러져 자연과 일상이 조 화를 이루는 주거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화솔루션 중앙연구소 연구동</li> <li>•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1공구</li> <li>• 강릉~제진 단선전철 제1공구</li> </ul>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2023) : 옛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부지를 활용해 4개의 행정기관을 입주한 복합청사. 행정 효율성과 시민 접근성 향상을 극대화 시킨 공공복합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li> <li>• 안양 오투기 기념관 증축 및 팩토리 신축공사</li> <li>• 소노캠 경주 리뉴얼공사</li> <li>• 세종 ~ 포천고속도로 고삼호수 복합휴게시설 신축공사</li> <li>• 쿠팡 부산 물류센터</li> <li>• 인천공항 AATS 항공기 정비격납고 신축공사</li> <li>•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 연결사업</li> <li>•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복선전철 제3공구</li> <li>• 목감천 하천정비사업</li> </ul>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공사(신문교) (2024) : 지역 간 이동 효율을 높이고 대덕특구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반시설</li> <li>• 둔산 엘리트 더 센트럴(KT 인재개발원 공동주택)(2024) : 둔산 생활권 중심에 조성돼 교육·교통· 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거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국제테니스장 조성사업</li> <li>•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li> <li>• 우즈베키스탄 제약클러스터 1차 사업</li> <li>•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li> </ul>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방위사업청 신청사(2025) : 국가균형발전과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국가시설 신축</li> <li>•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 건설 공사(2025) : 대전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국내 최초 트램 기술 도입</li> </ul>		 

## 디자인으로 쌓인 시간, 변화의 기록

계룡건설의 역사는 건축·주거·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해 온 프로젝트 경험과 함께, 기업의 시각적 체계가 형성되고 정비되어 온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형태, 브랜드 표현 방식, 로고와 서체 등은 각 시기 기업이 설정한 운영 기준과 방향을 반영하는 요소로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정체성과 활동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70년대 - 사업의 기초를 세우다」

1970년대 계룡건설은 지역 내 공공·주거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초기 사업 기반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1977년 착공한 '계룡맨션아파트'는 대전 지역에서 추진된 초기 민간 아파트 개발 사례 중 하나로, 계룡건설이 주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후 대전공설운동장 등 공공 인프라 관련 시공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의 물리적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 경험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 계룡건설은 기업 이미지를 보다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977년에는 원형 심벌마크가 사용되었으며, 1978년 한글 'ㄱ(계)'과 'ㄴ(룡)'의 형태를 변형한 심벌마크가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CI는 현장 간판, 문서, 장비 등 다양한 매체에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되며 기업의 시각적 식별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청색 계열의 색상이 주요 시각 요소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업 이미지의 기본적인 색채 기준이 형성되었습니다.

### 「1980년대 - 사업 영역의 확대와 커뮤니케이션의 정비」

1980년대 계룡건설은 공공건축, 기반시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사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전 역전 지하도상가 준공, 둔산신도시 개발 착공 등은 이 시기에 수행된 주요 프로젝트로, 기업이 도시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던 흐름을 보여줍니다.

1980년 후반에는 사내 소식지 「계룡가족」이 창간되어, 내부 소통을 위한 정기 발간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체계적인 홍보 및 조직 문화 정립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 「1990년대 - 사업 확장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다변화」

1990년대 계룡건설은 공공건축과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사업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 주요 시설(대전시관, 전기에너지관, 대공연장) 시공과 1996년 착공한 대전지하철 1호선 건설은 이 시기에 수행된 주요 사업으로, 기업의 활동 영역이 지역 단위를 넘어 확장되던 흐름을 보여줍니다.

사업 범위의 확대와 함께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TV 광고, 라디오 캠페인, 인쇄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고, CI 응용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의 시각적 표현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시각 자료는 기능적 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활동 영역과 역할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업 정체성이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가던 시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2000년대 - 국내외 사업 다변화와 문화·주거 디자인의 확장」

2000년대 계룡건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사업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주거단지 개발 사업은 계룡건설이 해외 주거 분야에 참여한 사례로, 주거 개발 경험이 해외 사업으로 확장되던 흐름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평택평화예술의전당, 이응노 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등 공공 문화시설 시공에 참여하며, 문화시설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2000년 '리슈빌' 브랜드 론칭을 기점으로 단지 외관, 색채, 환경 그래픽 등 주거 브랜드와 관련된 시각 요소가 단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로덴하우스'를 선보이며, 주거 유형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기준을 적용해 나갔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문화·교육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 이인구 명예회장의 사재 100억 원 기부로 조성된 유림 공원은 지역 내 도시 녹지 공간으로 조성된 사례로, 계룡장학재단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디자인 전개는 계룡건설이 사업 영역의 확장과 함께 도시 환경과 생활문화 속에서 시각적·공간적 표현 방식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2010년대 - 사업 고도화와 브랜드 관리 체계의 정교화」

2010년대 계룡건설은 대형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시공 경험을 축적하고, 브랜드 자산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서울식물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시설(강릉 아이스아레나·하키센터), 세종충남대학교병원, EBS 디지털 통합사옥 등 복합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슈빌 브랜드의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CI·BI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현장 표기물과 홍보물 전반에 통합된 시각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시공 활동과 더불어 브랜드 운영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체계화해 나가던 흐름을 보여줍니다.

## 「2020년대 - 주거 브랜드 개편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2020년대에 들어서며 계룡건설은 변화하는 주거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해 주거 브랜드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2021년 론칭된 '엘리프(ELIF)'는 기존 브랜드와 구분되는 색채 구성과 전용 서체, 외관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새로운 주거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효율성, 사용자 중심 설계가 강조됨에 따라, 계룡건설 역시 일부 프로젝트에서 친환경 건축자재와 에너지 절감형 설계 요소를 적용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유튜브 채널 '해볼계룡'을 개설하며 영상 콘텐츠와 소셜 미디어 활용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을 전달하는 시각적 표현 방식 역시 디지털 환경에 맞춰 변화해 왔습니다.

이 시기는 주거 브랜드 운영 방식의 조정, 시각 요소의 정비, 디지털 중심 커뮤니케이션 도입이 함께 이루어지며, 기업의 시각 디자인 자산 관리 방식이 현대적 환경에 맞게 정리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이 된 디자인, 시대의 건축을 말하다」

계룡건설의 디자인과 건축은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를 넘어, 대전이라는 도시가 성장해 온 과정 속에서 축적된 하나의 시각적 자산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공공시설, 주거단지, 문화시설에 적용된 형태와 색채, 공간 구성 방식은 기업의 운영 방향과 설계 기준이 실제 공간과 시각 요소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거리와 건물, 다양한 공간 속에는 이러한 건설 활동의 결과가 축적되어 도시 환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자인 아카이빙은 과거의 자료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공간 속에서 기업의 역할과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 왔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계룡건설이 남긴 디자인과 건축물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민의 생활환경과 경험에 영향을 주어 왔으며, 지역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룡건설이 축적해 온 디자인과 공간 자산은 대전의 도시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내 도시 환경과 건축 문화의 한 단면을 구성하는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 공간과 환경에 반영된 이러한 디자인 자산은 기업 활동의 결과물이자, 시간이 흐르며 도시가 공유하게 되는 문화적 요소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주요 연혁	년도	브랜드·디자인 흐름
(1970) 계룡건설합자회사 설립 - (1979) 대통령 산업포장 수훈 -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7) 원형 심벌마크 사용: 기업 시각 식별을 위한 초기 상징 요소 도입</li> <li>- (1978) 원형 CI 도입: 한글 ‘ㄱ(계)·‘ㄹ(룡)’ 형태를 변형한 심벌마크 적용, 기업명 기반 시각 상징 체계 구축</li> <li>- 초기 시그니처 컬러 적용: 청색 중심 시그니처 컬러 사용, 기업 시각 요소 규칙성 형성</li> </ul>
		
(1980) 대통령 표창 - (1981) 서울지사 설립 -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 커뮤니케이션 체계 정비: 기업 시각 요소 일관성 강화</li> <li>- 원형 CI 사용 체계 확립: 원형 CI 및 청색 시그니처 컬러의 실무 매체 적용 확대</li> <li>- (1989) 「계룡가족」 창간: 조직 문화 및 사내 소식 전달을 위한 정기 발간물 운영, 시각 자료 형식·구성 체계화</li> </ul>
		
(1992) 계룡장학재단 설립 - (1994)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설립 - (1996) 기업 공개(주식상장) - (1998) 계룡산업(주) 설립 - (1998) 대통령 표창 -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 계룡장학재단 설립: 교육 지원 중심 공익활동 제도화, 사회공헌 디자인 활동 기반 구축</li> <li>- 기업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확대: TV 광고, 라디오 캠페인, 인쇄 홍보물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 매체 확장</li> </ul>
 		
(2000) 계룡건설 30주년 - (2001) 계룡레저산업(주) 설립(대전동물원) - (2006) 대한민국 최고아파트 대상 - (2009)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1조원) - (2009) 국제디자인대상(한국공공디자인협회) -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리슈빌 주거 브랜드 확립: 단지 외관·색채·사인(Sign) 등 브랜드 적용 요소 정비, 주거 브랜드 시각 체계 기초 정립</li> <li>- (2009)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로덴하우스' 론칭: 차별화된 외관·인테리어·평면 구성, 주거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li> </ul>
		



<p>(2010) 창립 40주년 -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4) 탄방동 신사옥 완공 -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사회공공부문) -</p>	<p><b>2010년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슈빌 BI 리뉴얼: 클래식 BI의 현대적 재정비, 가독성 및 시각적 일관성 강화</li> <li>- 친환경·스마트 건축 요소 도입: 에너지 절감형 설계, 스마트 시스템, 친환경 자재 적용 기반 구축</li> </ul>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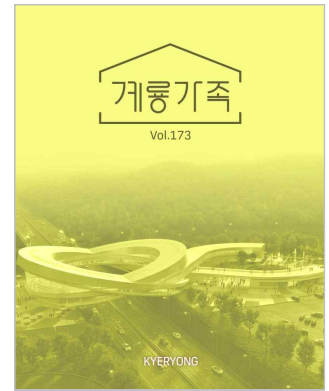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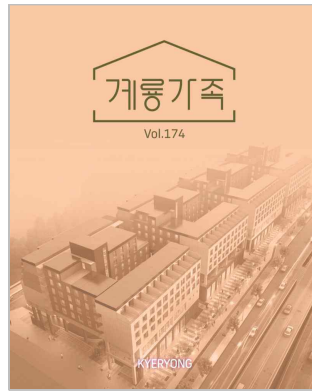
<p>(2020) 창립 50주년 -          (2020) 나눔명문기업 대전 1호 인증 -          (2022)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 -          (2024)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p>	<p><b>2020년대</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계룡그룹 창립 50주년: 100년 기업 비전 선포, 50주년 사사 발간</li> <li>- (2021) CI 리뉴얼: 기존 원형 심벌 단순화, 비례·균형 조정, 디지털 환경 대응 시각 아이덴티티 정비</li> <li>- (2021) 차세대 주거 브랜드 '엘리프(ELIF)' 론칭: 새로운 주거 가치 및 브랜드 방향성 제시</li> <li>- (2021) 계룡건설 공식 유튜브 '해블계룡' 채널 오픈: 건설전문 분야와 일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브랜드 소통 채널 확장(*구독자 약 5만 명 보유)</li> <li>- 커뮤니티 참여형 디자인 활동 확대: 시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플랫폼 확장</li> <li>- 디지털 브랜드 경험 강화: 브랜드 영상 콘텐츠 제작, 온라인 기반 홍보 전략 도입</li> <li>- 사회공헌 활동 지속성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 도시건축여행 등 지역 참여형 프로그램 지속 운영</li> <li>-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체계 확장: 사보 『계룡가족』 e-매거진 전환, 온라인 중심 브랜드 홍보 채널 구축</li> </ul>
-------------------------------------------------------------------------------------------------------------------------------------	----------------------------	-----------------------------------------------------------------------------------------------------------------------------------------------------------------------------------------------------------------------------------------------------------------------------------------------------------------------------------------------------------------------------------------------------------------------------------------------------------------------------------------------------------------------------------------------------------------------------------------------------------------------



# ELIF

## ENHANCE YOUR LIFE

엘리프 세상에 기대다



## 계룡건설의 얼굴, 시대를 담은 로고의 여정

계룡건설의 CI는 기업을 식별하는 시각 요소를 넘어, 기업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시각 체계의 일부 조정은 있었으나, '계룡'이라는 기업명을 기반으로 한 핵심적인 상징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 「1977년 - 첫 심벌 도입과 기업 정체성의 출발점」

계룡건설은 1977년 기업 심벌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초기 심벌은 원 내부에 단순화된 기하학적 선과 형태를 조합한 디자인으로, 당시 기업이 사용한 공식 시각 요소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1970년대 후반, 주택·토목·전기공사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각 요소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1978년에는 이후 CI의 기반이 되는 원형 심벌 구조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원형 구조는 이후 장기간 계룡건설을 대표하는 시각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 「1978년 - 원형 심벌의 정립과 시각 아이덴티티 구축」

1978년에 제정된 원형 심벌마크는 이후 계룡건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심벌은 원(圓)과 태극(太極)을 기본 구조로 삼고 있으며, 두 요소는 계룡건설의 기업 철학을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의미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형은 완벽함·무한함을 상징하며, 기업이 추구하는 무한한 발전과 오묘한 조화, 완벽을 추구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한 요소입니다. 태극 형상은 음양·오행·우주의 조화를 담은 기하학적 문양으로, 국가라는 큰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한국의 기업이라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여, 회사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벌은 단순한 원과 태극의 결합을 넘어, 회사명 '계룡'의 자모인 'ㄱ(계)'와 'ㄹ(룡)'을 기반으로 구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의 흰 부분은 삼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요소로 설명되며, 이는 계룡건설이 강조해 온 근로·개척 정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계룡건설의 CI는 이후 현장 간판, 문서, 장비,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에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기업의 시각적 식별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2021년 -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조형 정비」

계룡건설의 CI는 1978년 제정된 원형 심벌 구조를 기반으로 보완·유지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해당 구조를 계승한 상태에서 형태적 조정과 시각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벌 내부 곡선의 두께, 비례, 곡률이 보다 균형 있게 조정되었고, 상·하부 곡선 역시 이전보다 단정한 형태로 다듬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매체 환경에서의 시각적 안정성과 재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블루 계열 색상의 채도와 명도가 조정되어, 디지털 화면에서도 선명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색상 체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기존 심벌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매체 중심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각 요소를 현대적으로 정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축적 - 기업 철학의 시각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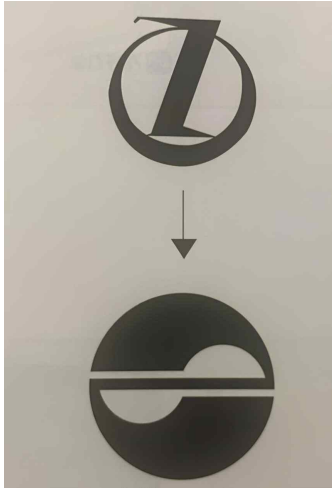
1977년 첫 심벌 도입 이후 현재의 CI에 이르기까지, 계룡건설의 로고 변화는 단순한 형태 수정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와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시각 시스템이 조정되어 온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벌의 중심 요소인 원형 구조와 ‘계룡’이라는 기업명을 기반으로 한 기본 조형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계룡건설의 시각 체계는 시대 변화 속에서도 큰 틀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시각 자산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계룡건설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브랜드 요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대별 조정 과정을 거치며 시각 요소는 점진적으로 정비되고 현대화되었으며, 이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브랜드 표현 방식을 유지·조정해 온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룡건설의 로고는 단순한 시각 표식을 넘어, 기업이 축적해 온 운영 방식과 정체성이 반영된 시각적 기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계룡건설 CI 변천사



[1977~1978년]  
계룡건설 초기 마크 변화



[1990년대~2021년]  
CI (심벌 + 한글 워드마크)



[2021년~현재]  
리뉴얼 CI

### ■ 계룡건설의 심벌·CI 변천사

: 계룡건설의 로고는 1970년대 도입된 초기 심벌에서 현재의 CI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과정과 시대적 변화에 맞춰 꾸준히 조정되어 왔다. 1977년 처음 사용된 심벌마크는 영문 이니셜을 원형 안에 단순화해 표현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1978년에는 원(圓)과 태극(太極)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심벌이 제정되었다. 이 심벌은 계룡건설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정립한 형태로, 이후 오랜 기간 현장 간판·문서·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표식으로 활용되었다.

2021년에는 기존 심벌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조형·비례·색상을 현대적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CI가 도입되었다. 심벌의 상징성과 형태적 특징은 유지하되, 더욱 명료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로 재정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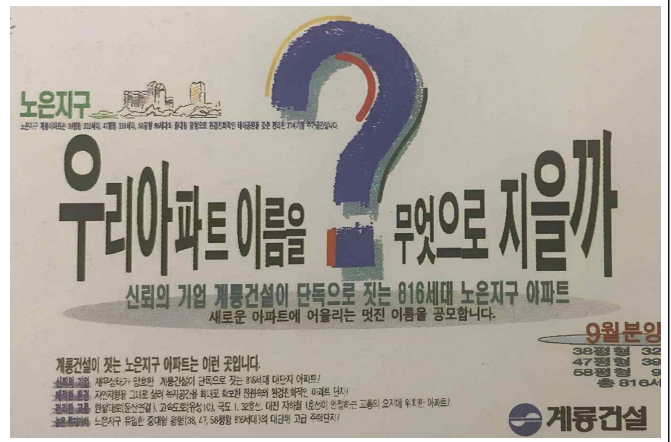
## 계룡건설 CI 활용 사례



초기 CI\_아파트 모델하우스 간판



초기 CI\_계룡건설 기업 홍보 영상



초기 CI\_신문광고



현행 CI\_계룡건설 기업 홍보 포스터



현행 CI\_계룡건설 기업 달력

■ 계룡건설의 시각적 상징

: 계룡건설의 원형 심벌은 오랜 기간 기업의 대표 시각 요소로 활용되며, 건설 현장 간판·사옥 외벽·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해 왔다. 높은 시인성과 단순한 구조는 어떤 환경에서도 일정한 인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아파트 브랜드 디자인의 진화

「삶을 짓는 기업, 도시의 일상을 설계하다」

계룡건설의 주거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시대별 주거 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 공간의 구조와 디자인, 주거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에 개발된 주거 단지들은 도시 주거 환경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며, 기업이 축적해 온 시공 기술과 공간 구성 방식, 주거 브랜드 체계 형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 | 1970년~2000년: 주거 사업의 출발과 브랜드 체계의 형성 - 계룡맨션아파트 · 리슈빌(RicheVille)

계룡건설이 1977년에 착공한 '계룡맨션아파트'는 대전 지역에서 추진된 초기 민간 아파트 개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계룡건설은 골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을 적용했으며, 이는 당시 민간 아파트 분양 방식과 비교해 특징적인 운영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룡맨션은 증가하던 주거 수요와 변화하는 도시 주거 형태 속에서 계룡건설이 주거 분야 시공 경험을 축적해 나가던 초기 사업 사례로, 이후 주거 브랜드 개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000년 계룡건설은 공식 주거 브랜드 '리슈빌(RicheVille)'을 도입하며, 주거 사업을 브랜드 기반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슈빌은 단지 외관, 색채 구성, 평면 계획,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브랜드 기준에 따라 적용한 주거 브랜드로, 계룡건설 주거 사업이 단지별 시공 중심에서 브랜드 단위 운영 체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이후 다양한 단지에서 일관된 시각·공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 2009년: 프리미엄 주거문화의 도입 - 로덴하우스(RothenHaus)

2009년 계룡건설은 기존 주거 브랜드 리슈빌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급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로덴하우스(RothenHaus)'를 도입했습니다.

로덴하우스는 프리미엄급 주거 단지를 대상으로 별도의 디자인 기준과 공간 구성 방식을 적용한 브랜드로, 기존 주거 브랜드와 구분됩니다. 외관은 안정적인 비례와 장식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 공간에는 고급 마감재와 설비를 적용해 주거 품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로덴하우스의 도입은 계룡건설 주거 사업에서 주거 유형별 브랜드 운영이 본격화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후 여러 단지에서 외관 디자인, 실내 구성, 커뮤니티 계획 등 프리미엄 요소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 | 2021년: 주거의 미래를 열다 - 엘리프(ELIF)

2021년 계룡건설은 주택 분야에서 축적해 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엘리프(ELIF)'를 론칭했습니다. 엘리프는 기존 주거 브랜드와 구분되는 시각 정체성과 설계 기준을 적용한 브랜드로, 브랜드명에는 '일상을 새롭

게 하다(Enhance Your Life)’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변화하는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 경험의 질을 고려한 주거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이후 건설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효율성, 사용자 중심 설계가 강조됨에 따라, 일부 엘리프 사업지에서는 제로에너지 요소의 적용, 환경 및 동선 계획 강화, 생활 편의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구성 등 현대적 주거 기준을 반영한 설계 요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삶을 짓고 문화를 남기다」

계룡건설의 주거 브랜드는 변화하는 주거 환경과 이용자 요구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계룡맨션, 리슈빌, 로덴하우스, 엘리프 등 주요 브랜드는 각각의 개발 목적과 주거 유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계룡건설의 주거 디자인이 시대 변화에 대응해 확장되고 세분화되어 온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적용된 설계 방식과 공간 구성, 시각 체계 또한 당시의 주거 트렌드와 시장 조건을 반영해 조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이 주거 품질과 생활 경험을 고려한 주거 사업 운영 방식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계룡건설 아파트 브랜드 변천사



### ■ 1977년, 계룡맨션 - 계룡건설 주거 사업의 출발점

: 1977년 착공하여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준공된 계룡맨션은 계룡건설이 참여한 초기 민간 아파트 개발 중 하나로, 이후 주거 브랜드 개발의 기반이 되었다. 모델하우스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던 시기, 골조 공사 단계에서 1층 내부를 먼저 완공해 시민에게 공개한 점은 당시 주거 안내 방식의 특징으로 남아 있다.



### ■ 2000년, 리슈빌(RicheVille)의 도입 - 주거 브랜드 체계의 정립

: 2000년 도입된 리슈빌(RicheVille)은 계룡건설이 주거 사업을 브랜드 단위로 운영하기 시작한 첫 공식 브랜드로, 주거 환경의 조화, 공간 구성의 안정감, 디자인 요소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초기 리슈빌은 색채·곡선·조경·조명 등의 요소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했으며, 이후 시기별 디자인 리뉴얼을 거치면서 현대적 감각과 기능성을 반영한 브랜드로 발전해 왔다.



### ■ 2009년, 로덴하우스(RothenHaus) -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의 도입

: 2009년 론칭된 로덴하우스(RothenHaus)는 고급 주거 시장을 위해 별도로 개발된 프리미엄 브랜드다. 중세 유럽풍의 품격 있는 건물 외관은 절제된 장식과 간결한 여백의미를 강조하는 내부 인테리어, 해외 유명 브랜드의 고급 마감재 사용 등 수요층의 기호를 충족시켰다.



■ 2021년, 엘리프(ELIF) - 새로운 주거 경험을 지향하는 브랜드

: 2021년 론칭된 엘리프(ELIF)는 계룡건설의 차세대 주거 브랜드로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BI를 도입하여 기존 리슈빌과 구별되는 시각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엘리프는 주거의 핵심에 집중하고 남다른 프리미엄 공간 구현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담고 있다.

## BRAND HISTORY



### 리슈빌 런칭 2000

설계에서 마감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고객 만족을 창조해 온 리슈빌은 아름다운 삶의 조화를 오케스트라가 지휘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며 오랫동안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 로덴하우스 런칭 2009

로덴하우스는 계룡건설이 오랜 세월 주택사업에서 쌓은 역량을 모아 탄생시킨 최고급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로서 소수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명품 주거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 엘리프 런칭 2021

리슈빌과 로덴하우스의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을 새롭게 하다'라는 고유의 브랜드 철학을 담아 새로운 주거 브랜드 'ELIF'를 런칭합니다. ELIF는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새롭게 다가갑니다.

## 「리슈빌(RicheVille) - 계룡건설 주거 브랜드의 시작」

2000년 처음 론칭된 리슈빌(RicheVille)은 계룡건설의 대표 주거 브랜드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조화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표현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명 'RicheVille'은 프랑스어식 표현으로 '풍요로운 마을(Riche Village)'을 의미하며, 풍요로움이 시작되는 곳, 풍요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가치 있는 주거 공간이라는 콘셉트를 담고 있습니다.

리슈빌은 단순한 아파트 명칭을 넘어, 계룡건설이 주거 사업을 브랜드 체계로 운영하기 시작한 초기 사례로, 주거 공간의 설계·디자인·환경 요소를 브랜드 기준에 따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컬러는 RicheVille Red Wine을 사용해 고급스럽고 귀족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였고, 워드마크는 심벌과 조화를 이루는 명조체 계열의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리슈빌의 심벌은 알파벳 'V'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모습 혹은 꽃이 피어나는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시각적 주목성을 높였으며,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곡선 구조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리슈빌 BI 변천사




Richeville  
Natural Premium

Rich Signal

RICHEVILLE

### ■ 초기 리슈빌 BI (2000~2010)

: 초기 리슈빌 BI는 한글 로고타입을 중심으로 상단에 곡선 형태의 심벌을 배치한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둥근 획과 부드러운 선의 조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차분한 인상을 전달하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Richeville  
리슈빌



내가 사랑한 아파트  
Symphony of My Life  
RICHEVILLE

### ■ 리뉴얼 리슈빌 BI (2010~2021)

: 2010년대 이후 리슈빌은 기존 브랜드 철학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 변화에 맞춰 감성적 세련미와 현대적인 조형 표현을 강화한 BI로 리뉴얼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문 로고타입 'Richeville'의 알파벳 'V'를 중심으로 한 심벌 구조가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었으며, 해당 'V' 형태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모습이나 꽃이 피어나는 형상을 연상시키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시각적 주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드럽고 안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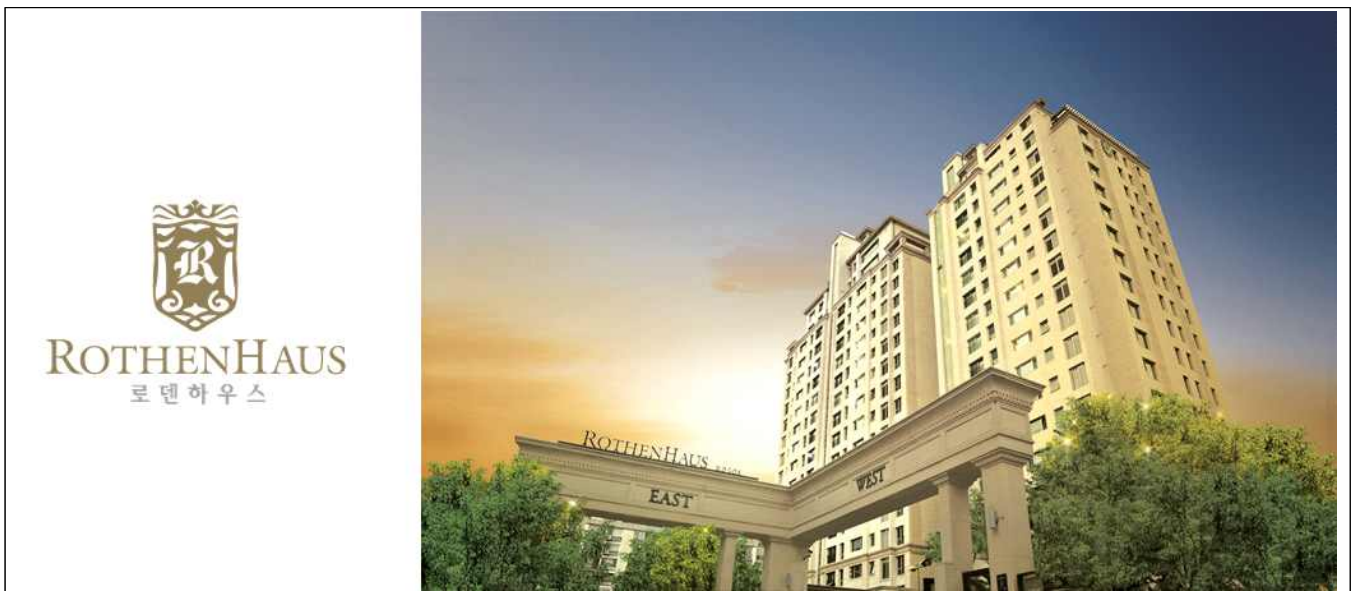
## 「로덴하우스 (RothenHaus) -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의 도입」

로덴하우스(RothenHaus)는 2009년 계룡건설이 도입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로, 리슈빌(RicheVille)을 통해 축적된 주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고급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브랜드입니다.

로덴하우스는 2000년대 중·후반 국내 주거 시장에서 나타난 고급화·차별화된 주거 수요 증가 흐름을 반영해 기획되었으며, 절제된 장식과 간결한 여백의미를 강조하는 내부 인테리어, 최고 품질의 마감재 사용 등 프리미엄 요소를 중심으로 고급 주거지에서 요구되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브랜드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중세 유럽풍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형태를 적용했으며, 내부 공간에는 고급 마감재와 설비를 적용해 주거 품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저밀도 단지 구성과 대형 평면 중심의 설계를 통해, 고급 주거지에서 선호되는 공간 구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로덴하우스의 BI는 브랜드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문장(紋章)형 심벌과 유럽풍 세리프 타입의 이니셜을 결합한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골드·브라운 계열 색상을 사용해 차분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 로덴하우스 BI 디자인



### ■ 로덴하우스 BI

: 중앙에 배치된 'R' 이니셜은 브랜드명 RothenHaus를 시각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활용되었으며,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의 성격을 고려한 정제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컬러는 골드·브라운·블랙 계열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차분하고 중후한 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로덴하우스가 지향하는 고급 주거 라인업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구성으로, 브랜드의 식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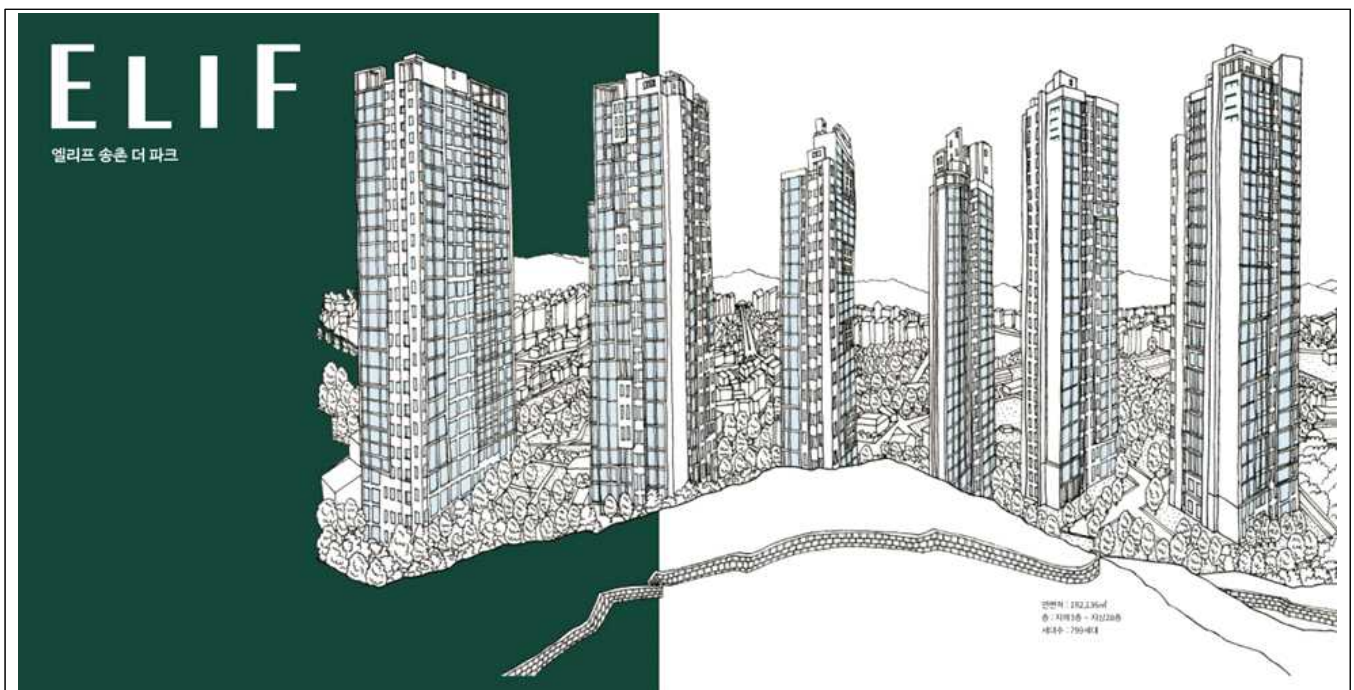
## 「엘리프 (ELIF) - 계룡건설의 차세대 주거 브랜드」

엘리프(ELIF)는 2021년 계룡건설이 공식 론칭한 주거 브랜드로 '일상을 새롭게 하다(Enhance Your Life)'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브랜드명 'ELIF'는 'LIFE'를 모티브로, 주거의 핵심에 집중하고 남다른 프리미엄 공간 구현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은 단순하고 명료한 시각적 인상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BI의 핵심 색상인 '엘리프 그린 (ELIF Green, PANTONE 3308C)'은 자연과 안정감을 연상시키는 색상으로, 광고물, 웹사이트, 단지 사인 등 다양한 매체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통합적인 시각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거 설계 측면에서는 2020년대 건설 산업 전반에서 강조되는 흐름을 반영해, 일부 사업지에 사용자 중심 설계, 효율적인 공간 구성, 친환경·저에너지 요소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프는 평면 구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동선, 커뮤니티 공간, 감성적 공간 구성을 포함한 현대적 주거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엘리프는 계룡건설 주거 브랜드 체계 내에서 차세대 라인업을 담당하는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주거 시장과 이용자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표준형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엘리프 BI 디자인

Primary Color

**ELIF GREEN**  
PANTONE 3308C

C91 M47 Y73 K50  
R28 G67 B56  
#054438

ELIF  
엘리프

Secondary Color

**ELIF PALE GREEN**  
PANTONE 9063C

C7 M5 Y13 K0  
R235 G233 B219  
#EBE9DC

**ELIF LIME**  
PANTONE 2274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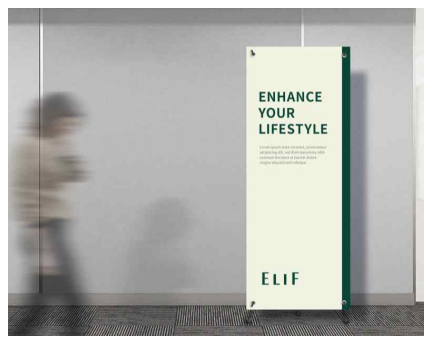
C15 M6 Y32 K0  
R218 G221 B183  
#DADD89

**ELIF BEIGE**  
PANTONE 7528C

C22 M23 Y34 K0  
R210 G187 B166  
#C8BAA7

**ELIF WARM GRAY**  
PANTONE WARMGRAY 9C

C58 M52 Y52 K6  
R120 G116 B114  
#787472



### ■ 엘리프(ELIF) BI

: 엘리프(ELIF)의 BI는 브랜드의 시각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ELIF Green (PANTONE 3308C)을 메인 컬러로 사용하며, 세컨드 컬러인 페일그린, 라임, 베이지, 워그레이는 다양한 매체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구성되었다. 로고타입은 가독성이 높고 명료한 형태로 구성되어 단순하고 현대적인 인상을 전달한다. 이러한 컬러, 서체, 조형 요소는 엘리프 BI가 현대적 주거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매체와 환경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 「공간을 짓고, 브랜드로 기억되다」

계룡건설의 반세기 역사에는 건축 활동과 함께 기업의 시각적 정체성이 형성·변화해 온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계룡건설은 도시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주거·공공·문화 시설 전반에 걸친 공간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고, CI, 주거 브랜드 등 시각 요소는 기업의 활동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초기 심벌은 1970년대 산업화 시기의 기업 환경을 반영한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1978년 도입된 원형 CI는 이후 오랜 기간 계룡건설을 대표하는 시각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 CI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형, 색채, 비례를 디지털 매체 환경에 맞게 조정한 개정 CI가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시각 체계가 현대적 환경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시각적 정체성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관리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 브랜드의 전개 역시 기업 활동의 흐름과 맞물려 발전해 왔습니다. 계룡맨션을 비롯해 2000년 리슈빌(RicheVille), 2009년 로덴하우스(RothenHaus), 2021년 엘리프(ELIF)에 이르기까지, 각 브랜드는 도입 시점의 주거 수요, 시장 환경, 디자인 경향을 반영해 서로 다른 목적과 구성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와 시각 체계는 계룡건설이 수행해 온 다양한 건설 활동이 도시 환경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인식되는 방식을 형성해 온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고의 구조, 색채 활용 방식, 브랜드별 디자인 시스템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된 요소와 조정된 요소가 함께 존재하며, 이는 기업의 시각적 자산이 축적·관리되어 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계룡건설의 브랜드 전개는 개별 디자인 변화의 기록을 넘어, 다양한 기업 활동이 누적된 결과로 형성된 시각적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로고, 브랜드, 공간 관련 요소들은 기업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기능하며, 계룡건설의 각종 건설 관련 작업이 도시의 생활환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람과 도시를 잇는 계룡건설

## Part 1. 사람을 향한 디자인 - 계룡장학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 「사회공헌의 제도화, 장학재단의 설립」

계룡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은 1992년 설립된 계룡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재단은 이인구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초기 출연금 5억 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룡건설과 계열사, 임직원, 창업주 일가의 참여를 통해 운영 기반을 확대해 왔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2025년 기준으로 약 1만 6,200명에게 총 7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중부권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민간 장학재단 가운데 안정적인 지속성과 지원 규모를 갖춘 대표적인 재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계룡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운영 목표로 삼아 왔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과 함께, 재단은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 도시·건축 관련 프로그램, 지역 문화 참여 활동 등 다양한 공익 사업을 병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계룡건설의 사회공헌은 교육 지원을 넘어 문화와 공동체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계룡장학재단의 주요 활동

구분	주요 내용	디자인적 가치 및 사회적 의미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장학재단으로 일반 장학생, 소년소녀가장, 전국체전 우수입상학생, 특별 격려 장학생 등 폭넓은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교육의 기회를 '공간'처럼 확장하는 계룡형 나눔 구조</li><li>경제적 지원을 넘어, 성장의 가능성을 디자인하는 교육 인프라</li></ul>
아이디어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학생 및 건축 전공자를 대상으로 미래 도시·재생·공존 주제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li><li>유현준 교수 등 전문가 멘토링, 실무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젊은 세대의 창의력과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형 사회공헌 디자인</li><li>미래 건축가가 도시의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경험의 장</li></ul>
도시건축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학생·청소년 대상 국내외 건축문화 탐방 프로그램</li><li>건축·공간·도시를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시야 확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도시를 '교과서'로 삼는 체험형 교육 디자인</li><li>공간의 의미를 몸으로 배우는 '현장 기반 사회교육'</li></ul>
유림공원 사생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유림공원에서 열리는 시민 참여 예술행사</li><li>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사생대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도심 속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공공문화 디자인</li><li>어린이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지역 문화축제</li></ul>

## 「미래를 잇는 사회적 디자인의 유산」

계룡장학재단의 활동은 계룡건설이 지향해 온 사회공헌 방식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후원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교육·문화·역사·지역 공동체를 포괄하는 사회적 지원 체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장학사업은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 인재 양성을 지원해 왔으며, 문화·예술 관련 활동은 지역 시민의 참여와 경험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와 지역 관련 지원은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재단 설립 이후 일정한 방향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계룡장학재단 운영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룡장학재단은 재정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대학생·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이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해 왔습니다. 계룡건설이 건설 사업을 통해 도시의 물리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면, 계룡장학재단은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사회적 기반을 지원해 온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공헌이 기업 활동과 분리된 부수적 영역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운영 분야 중 하나였음을 보여줍니다.

계룡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되며, 교육·문화·예술·역사 기반의 공익 활동을 하나의 운영 체계로 연결해 왔습니다. 장학사업은 교육 지원이라는 기본 틀을 형성했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시민과 청소년이 지역의 공간과 문화, 역사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발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과 참여 경험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성장 기반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계룡장학재단은 설립 취지에 따라 교육과 문화 분야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지역 사회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계룡건설의 사회공헌은 건설 사업과 분리된 별도의 영역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함께 지원해 온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룡장학재단의 지속적인 운영은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교육·문화·지역 지원을 이어온 사례로서, 지역 사회에 남겨진 의미 있는 기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계룡장학재단



### ■ 계룡장학재단 설립 목표 및 사업영역

계룡장학재단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인재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 이후 계룡 건설과 계열사, 임직원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장학 지원뿐 아니라 문화·예술·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등으로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다. 재단의 사회공헌 구조는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교육과 지역 발전을 지원해 온 활동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 구성원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온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은 건축과 도시 환경을 주제로 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과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공간과 사회 문제에 대한 건축적 접근 방식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계룡장학재단이 운영해 온 대표적인 교육·문화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 ■ 도시건축여행

‘도시건축여행’은 게룡장학재단이 운영해 온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도시와 건축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탐방 프로그램이다. 대전 지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축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안내 아래 주요 건축물, 도시 공간,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교실 밖에서 도시를 관찰하고 건축적 관점을 실습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활동으로, 청소년이 도시 환경과 건축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 ■ 유림공원 사생대회

: 유림공원 사생대회는 유림공원에서 개최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사생대회 및 백일장 행사로 참가자들은 공원 내 자연 환경을 관찰하며 자유롭게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예술적 표현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지역 내 가족 단위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사는 일부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구성되며, 아이들이 도심 속 자연 공간에서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이다.

## Part 2. 문화가 머무는 도시 - 문화 기반을 형성하는 건축

### 「도시의 공공성을 짓다, 문화 기반을 확장하다」

계룡건설이 참여해 온 공공 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단순한 건축 시공을 넘어, 도시가 활용하는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공건축은 구조적 완성도와 함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기능, 환경, 경험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계룡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문화시설들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 자산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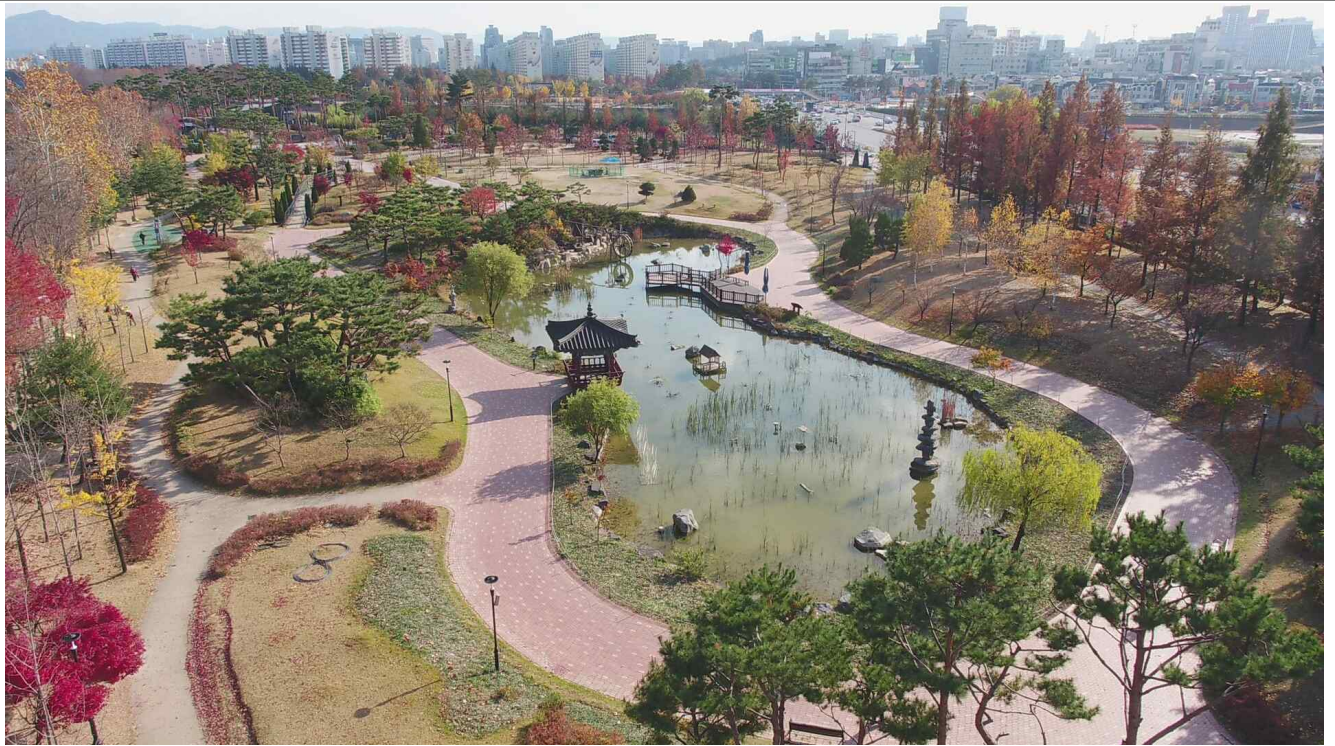
대전은 과학·행정 중심 도시의 성격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이 병행되는 도시로 변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유림공원, 이응노미술관 등 계룡건설이 참여한 시설들은 시민의 일상 속에 문화적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건축물의 기능을 넘어, 도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이용 경험과 지역 정체성이 형성되는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유림공원 - 도시 속 자연과 휴식, 시민을 위한 열린 공공 공간」

유림공원은 계룡건설의 지역 연계 활동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공 공간으로, 이인구 명예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조성한 뒤 대전시에 기부한 시설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이 공원은 시민이 여가·휴식·산책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자연 기반의 공공녹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5.7헥타르 규모의 유림공원은 한반도 형태의 인공호수 '반도지'를 중심으로 정자 '유림정', 산책로, 분수,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소규모 야외무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의 공간 구성은 시민 이용을 고려해 계획되었으며, 자연경관과 여가 기능을 결합한 도시형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공원 조성 이후에도 계룡건설은 유림공원 사생대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유림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 활동과 가족 단위 참여가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형 공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휴식·문화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도심 공공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유림공원

: 유림공원은 이인구 명예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한 도시공원으로, 계룡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표하는 사례이다. 총 5.7헥타르 규모로 조성된 공원은 인공호수 ‘반도지’를 중심으로 정자, 산책로, 분수, 야외무대 등 다양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 속에서 자연과 시민 생활이 어우러지는 공공녹지로 활용되고 있다. 계룡건설은 조성 이후에도 유림공원 사생대회 등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며, 공원이 문화·예술 활동과 가족 단위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기반 공간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유림공원은 도시 내 녹지 확충과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 「이응노미술관 - 예술과 건축이 만나는 도시의 문화시설」

이응노미술관은 대전 출신 화가 고암 이응노(李應魯, 1904~1989)의 작품 세계를 기리고 전시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로, 대전예술의전당과 한밭수목원 인근에 위치해 주변 문화 인프라와 연계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완공된 이응노미술관은 프랑스 건축가 로랑 보두앵(Laurent Beaudouin)의 설계로, 고암 이응노의 대표적 작품 경향인 '문자추상'의 조형적 감각을 건축의 형태와 재료에 현대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축적으로는 백색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의 대비, 간결한 매스 구성,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개방형 동선 등이 적용되어 전시 기능과 공간 구성의 명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이 시공을 담당하여 백색 노출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한 설계 의도가 구현되었으며, 현재 이응노미술관은 전시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예술과 여가를 함께 접할 수 있는 공공문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 이응노미술관

: 이응노미술관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로, 프랑스 건축가 로랑 보두앵(Laurent Beaudouin)의 설계를 통해 백색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를 주요 재료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건물의 형태는 고암의 작품에서 보이는 단정한 구성과 여백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계룡건설은 설계 의도에 맞춰 백색 노출 콘크리트 시공을 수행하였으며, 외부·내부 공간의 연결, 전시 공간의 채광과 동선 계획 등 기능적 측면에서 완성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술관은 주변의 문화시설들과 함께 대전 지역 문화 활동의 기반을 이루며, 시민들이 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 「베이스볼 드림파크 - 스포츠와 문화가 결합된 도시형 복합 시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야구장을 목표로 조성된 시설로, 스포츠와 문화·예술 기능이 결합된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 약 2만 석의 관람석을 갖춘 야구장으로, 시민의 관람 환경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도시형 야구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조성된 부지는 과거 대전공설운동장과 이후 한밭종합운동장이 위치했던 장소로, 오랜 기간 대전을 대표하는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계룡건설은 과거 종합운동장 건설에 참여한 데 이어, 동일한 부지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대전을 대표하는 스포츠 공간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에 동참하였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에는 밀착형 관람석과 서핑존 등 최신 관람 시설이 도입되었으며, 특허를 취득한 수밀성 균열 저감 콘크리트와 고성능 친환경 바닥재를 적용해 제로에너지·저탄소 건축을 지향하는 공공 스포츠 시설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문화공연, 휴식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성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단순한 경기 관람 시설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도시 생활 인프라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대전 지역 스포츠 인프라가 변화·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공공 건축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 베이스볼 드림파크

: 계룡건설은 과거 대전공설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이후 한밭종합운동장으로 사용되었던 부지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을 수행하며, 대전을 대표해 온 스포츠 공간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환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야구장을 목표로 계획된 복합 스포츠 인프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에 약 2만 석의 관람석을 갖춘 야구장으로 구성되었다. 경기 관람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여가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365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삶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대전의 미래를 짓다」

계룡건설은 유림공원, 이응노미술관,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문화시설 및 도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전의 공공문화 환경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기반을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계룡건설이 참여한 공공 문화시설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설계·시공되었으며, 대전이 문화·예술·여가 기능을 갖춘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기반을 형성해 왔습니다. 유림공원은 도심 속 자연 기반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이응노미술관은 지역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전시·교육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스포츠 관람을 중심으로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성을 포함해, 기존 스포츠 인프라의 활용 방식이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건축 시공을 넘어, 시민의 생활·문화·여가 활동을 뒷받침하는 도시 이용 환경의 기반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계룡건설이 대전 지역에서 수행한 공공·문화 공간 사업은 도시 환경과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해 공공 시설의 역할과 활용 범위를 확장해 온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시설들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지역 공공문화 인프라의 일부로 활용될 자산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 Part 3. 함께 살아가는 도시 - 시민과 연결되는 디자인

### 「시민 참여 기반의 지역 연계 활동, 도시를 매개로 한 소통」

계룡건설의 지역 연계 활동은 시민 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건설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된 문화·스포츠·커뮤니티 활동들은 기업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확대해 왔습니다.

계룡건설은 대전 0시축제 후원, 대전하나시티즌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 기반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공공문화 행사와 스포츠 프로그램 등 도시의 일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룡건설의 지역 연계 활동은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도시 생활 문화 환경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참여 구조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전 0시축제」

대전 0시축제는 대전시가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간 문화행사로, 계룡건설은 후원사로 참여하여 행사 운영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축제는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되며, 야간 조명 연출, 공연,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도심 공간을 활용한 공공문화 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의 참여는 지역 문화행사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업이 시민과 접점을 형성해 온 공공문화 참여 활동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전하나시티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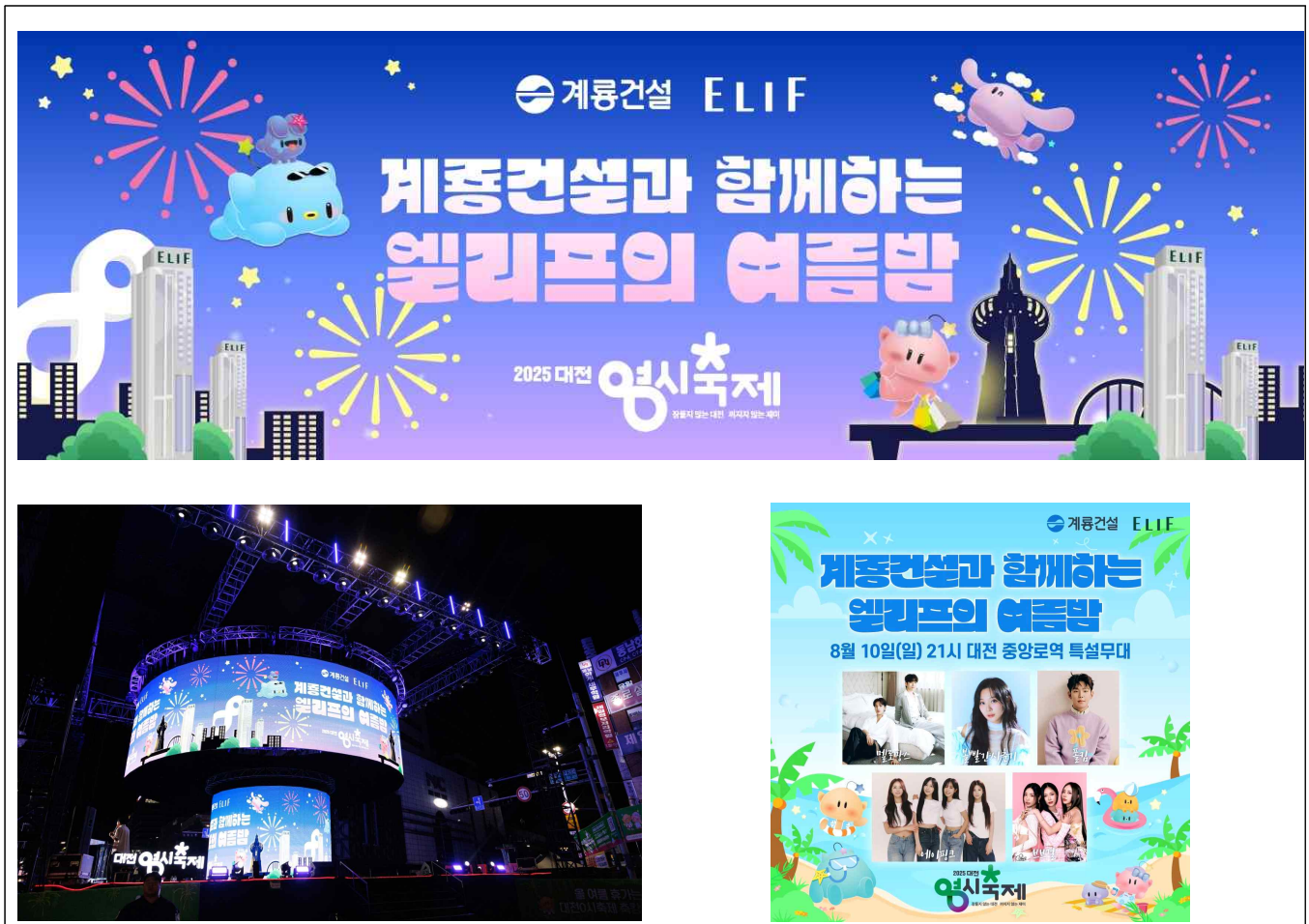
계룡건설은 2022년 프로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과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장 내 브랜딩 운영과 브랜드데이 행사 협력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브랜드데이 행사는 경기 관람과 더불어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이벤트 운영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스포츠의 공공성과 시민 참여 요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왔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함께 운영되어, 지역 스포츠 기반 강화와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후원 활동은 기업이 지역 스포츠 활동 환경을 지원해 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시민과 함께 형성된 도시 경험」

계룡건설이 참여해 온 문화·스포츠·커뮤니티 기반 활동들은 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시민 참여를 중심에 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공공문화 행사, 체육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해 왔으며, 지역 연계 활동이 도시의 일상적 경험과 접점을 이루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이 도시 공간과 문화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활동이 지역의 생활문화 환경과 연계되어 축적되어 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룡건설의 시민 참여 활동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해 온 하나의 방식으로 기능해 왔으며, 문화·스포츠·커뮤니티 환경을 매개로 시민의 도시 경험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지역 연계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대전 0시축제

: 계룡건설은 대전시가 주최하는 야간문화축제 '대전 0시축제'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왔다. 기업 후원 아래 운영된 '계룡건설과 함께하는 엘리프의 여름밤' 프로그램은 공연·체험 등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되었으며, 이 활동은 기업 후원이 지역 문화행사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에 활용된 사례로, 도심 공공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 경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K:ONNECT

## "하나되는 순간"

색을 찾아 완성하는 2025 브랜드데이

# 계룡 컬러플레이 Colorplay

하늘 아래, 축구의 열기와 계룡가족의 웃음이 가득했던 2025 브랜드 데이!  
대전하나시티즌의 찐팬은 물론 주말 나들이를 나온 계룡가족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했던 2025 브랜드데이!







■ 계룡건설 x 대전하나시티즌

: 계룡건설은 프로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후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브랜드데이 행사를 운영하며, 현장 이벤트와 응원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2022년 ‘같이 잇는 가치’, 2023년 ‘다모행’, 2024년 ‘WE하여’, 2025년 ‘K:ONNECT-하나되는 순간’ 등 매년 차별화된 주제를 설정해 브랜드데이를 기획·운영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경기 관람과 연계된 시민 참여형 행사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이 스포츠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활동은 기업의 후원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스포츠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형성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 「함께 짓는 도시, 함께 만들어 온 일상」

계룡건설은 기업의 주요 사업 영역과는 별도로 문화·스포츠·커뮤니티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도시 환경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형성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계룡건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단기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참여와 교류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 관점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룡장학재단은 교육 및 문화 지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유림공원과 이응노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 시공은 도시의 환경적·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또한 대전 0시축제 후원, 대전하나시티즌 브랜드데이 운영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은 기업이 지역 행사와 문화·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성격과 운영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도시문화 기반의 형성, 시민 경험의 축적이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건설기업으로서의 기술적 역할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도시의 일상적 경험과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계룡건설의 활동은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 문화, 공공성, 커뮤니티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원이 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결합되어, 도시의 생활문화 환경을 보완하고 시민 참여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계룡건설이 대전 지역에서 수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은 개별 건축 사업이나 단발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축적된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향후에도 지역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기업이 지역과 함께 구축해 온 교육·문화·참여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환경의 지속성에 기여해 온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대전과 함께해 온 시간, 그리고 이어질 이야기

### 「디자인으로 미래를 짓다」

계룡건설이 걸어온 과정은 건축사업의 성과를 축적해 온 기록이자, 기업의 철학과 운영 방식이 디자인을 통해 구체화 되어 온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내세워 온 ‘도전·개척·일로매진’의 정신은 다양한 건축물과 브랜드 체계, 도시 공간 프로젝트를 거치며 계룡건설의 시각적·공간적 특성으로 축적되어 왔습니다. 로고, 색채, 건축적 요소 등 기업이 활용해 온 디자인 자산은 기능적 역할을 넘어, 기업의 정체성이 도시 환경 속에서 인식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계룡건설은 공공시설, 주거 브랜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도시 환경과 시민의 일상적 경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건축과 디자인이 시민의 이용과 경험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디자인 체계는 단순한 시각 표현을 넘어 운영 철학이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구조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계룡건설이 축적해 온 경험과 활동은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환경과 이용 품질을 개선하며 지역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온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수행한 건축물은 개별 시설을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도시 환경의 일부로 기능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물들은 계룡건설의 시공 역량과 함께 디자인이 지역 사회와 생활 공간 속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건설은 지속가능성, 기술 혁신, 사용자 중심 설계 등 건설 산업 전반에서 강조되는 흐름을 반영하여, 이를 공간 설계와 도시 기반 조성 과정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ZEB), 모듈러 공법 등 친환경·효율성 중심의 기술과 스마트시티 관련 요소는 산업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며, 계룡건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건설 기업이 장기적인 환경적·사회적 요구를 고려하며 사업을 수행하려는 산업 전반의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 「끝나지 않는 역사, 계속되는 문화」

이번 디자인 아카이빙 작업은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축적해 온 철학과 시각 체계, 공간 설계의 흐름을 정리하여 미래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카이빙을 통해 남겨지는 것은 개별 건축물이나 디자인 결과물이 아니라, 기업이 각 시기마다 어떤 기준과 방향을 바탕으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기록입니다.

계룡건설의 지난 50여 년은 도시의 변화와 함께 전개되어 온 시간으로, 건축물, 브랜드, 공공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에는 각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운영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공간 조성 and 디자인 운영 방향을 검토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이 축적해 온 경험이 다음 세대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대전에서 시작된 계룡건설의 활동은 지역사회와 함께 형성된 도시 변화의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온 경영 철학은 건축물, 사회공헌 활동, 브랜드 운영 전반에 반영되며 기업의 정체성을 구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후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일상적 경험을 지원해 온 과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건설이 이어갈 시간은 사람과 도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운영 방식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사례를 넘어, 기업이 도시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사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브랜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은 앞으로도 도시의 생활문화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로 기능할 것입니다.

계룡건설의 디자인과 건축은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넘어, 시민의 경험과 지역 문화 환경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아카이빙은 기업 활동의 또 다른 기록이자, 향후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로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이 축적해 온 경험과 디자인 자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계룡건설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대전 기업 디자인 아카이빙 연구사업(2025)」의 결과물로, 보고서의 저작권은 대전디자인진흥원(DIDP)에 있으며, 연구 수행 및 보고서 제작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담당하였습니다. 일부 이미지 및 자료의 저작권은 계룡건설산업(주)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무단 복제,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